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⑨

4월 30일  
주제 - 선 수행의 단계

# 생활 떠난 간화선은 토끼 뽕 같이 허망

**說禪** 정광 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장)

오늘 주제가 '선수행의 단계'입니다. 이는 '간화선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간화선은 화두(話頭)를 보아 각자가 지난 본래 성품자리인 진여자성(眞如自性)을 확견(徹見)하고 성불(成佛)하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하는 조사선(祖師傳) 수행법을 말합니다.

활벽 스님의 <전심법요>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과 일체종생이 오직 한 마음입니다. 다시 별다른 법이 없다. 이 마음은 무시이래로 일찍이 난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으며,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으며, 정해진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새것이나 헌것으로도 계산하지 못하며, 길지도 아니하고 짧지도 아니하며, 크지도 작지도 아니하며, 일체 한량(限量)이나 명언(名言)이나, 종적(蹤跡)이나, 상대(對稱)됨을 뛰어넘어 바로 이 몸 이대로일 뿐이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 버리니 마치 허공이 끝이 없어 재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본분사, 본원 청정심, 진여자성, 평상심, 진심, 무심, 일물(一物) 무일물(無一物)등으로 일컬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부처님과 종생이 조금도 차별 없는 본분사를 들어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분사는 천명의 성인이 있더라도 전하지 못한다 하였고, 또한 사람마다 본래 구족하고, 누구나 원만히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벽입록> '평상' 에 이르기를 '그대들이 다만 위로는 제불(諸佛)이 있음을 보지 않고, 아래로는 종생이 있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는 신하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견문각지(見聞覺知)가 있음을 보지

아니하여, 마치 아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과 같이 길고, 짧고, 좋고, 나쁨을 쳐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날날이 잡아 올리라도 다시 다른 견해가 없어진 연후, 응응에 그 마땅함을 잃지 않아야 삼라만상과 초목, 인간, 육생들이 뚜렷이 자기가품을 온전히 드러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본분사에 계합하는 수행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사상은 남과, 마조, 백장, 황벽, 입제 스님에 이르러, 그 법이 오조 법연, 원오, 대혜 스님에 이르러 화두를 참구하는 공안이 정형화(定型化)되고, 집중적으로 하나의 공안에 생사대사를 결탁토록 하는 간화선법이 대혜 스님 때에 확립되어 왔습니다.

화두가 무엇입니까? 화두는 말의 길과 마음의 길이 끊어져 사방 분별로는 알 수 없고,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활구(活句)를 말합니다. 말의 길(語路)도 있고 이치의 길도 있어서 들어서 알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불조(佛祖)의 말씀하신 구절을 사구(死句)라고 명칭합니다. 수행자는 활구를 참구할 것이요, 사구를 참구하지 말아야 하니, 활구에서 깨달으면 불조로 더불어 스승이 될 만 하고, 사구(死句)에서 깨달으면, 제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두참구는 반드시 근본을 여의지 않고 공부할 지어감이 중요하므로 사람마다 원만히 갖추어진 진여자성을 깨달아 증득함에 의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단계의 요점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조사스님들이 이심전심한 조사선과 간화선의 수행법이 근본자리에서는 조금도 다를 이 없는 본래성불을 주장(主唱)한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부처다, 종생이다 하



정광 스님은

· 1942년 경남 창원시, 1961년 생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 40년간 제법선원에서 참선수행, 봉암사에서 30년 이상 정진.

· 모음 제 138호인 '봉암사 지중대사적조탐미' 등 선종사 관련 비문들을 번역 · 연구한 <지중대사비명소고>를 펴내 한국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

는 말은 호칭만 다를 뿐이지 조금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본래 부처님일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닦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음에는 반드시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상 닦아야 하고, 닦지 않을 때는 털끝만큼도 없다고 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께서는 뒤음(修)이 없고,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활구(活句)를 말씀하시며, 오염(汚染)됨이 없이 닦는다고 하시며 그 종지(宗旨)를 설명하실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고 지니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상과 행위를 늘 가지고 닦지 아니하면, 순간에 역사의 흐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로인해 사람 몸마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가 본래 부처님임을 명확하게 깨달아 부처런히 수행하는 길만이 공극의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축복 받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떠난 간화선은 허망하여 토끼뽕이나 거북의 털 같다고 하여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문중에서는 행주좌와(行住坐臥)와 어묵동정(語默動靜)을 늘 여의지 말고, 한결같이 공부 짓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선은 전문수행자만이 닦는 것이요, 상근기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 잘못 인식되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실질적인 선으로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중에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급히 변천하는 현 시대의 바쁜 생활 중에도 가장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 간화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드는 짧은 순간에 한 랑없는 오랜 시간을 남김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배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화두를 드는 순간 내가 스스로 부처임이 믿어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이 모이는 사이 점차 익어져서 시비에 갈등하고 집착하는 중생심을 멀리 여의고 청정하고 물들이 없는 순일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게 되므로, 조작하여 취사(取捨)함이 없는 의단이 독로(獨露)하게 됩니다.

의단이 독로하게 되면, 마음과 경계가 타성일편(打成一片; 한 덩어리를 이룸)이 되고, 무심(無心)이 깊고 그윽하여 일용(日用) 중에 막히거나 장애됨이 없는지라 불성이 밝게 드러나지 아니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중이 간화선을 실천하여 고독한 자신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이 부처임을 확신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은 다 같이 합장하고 화두를 한번 들어 봅시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나의 진성(眞性)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평소에 만나고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법인 "성불합시다"를 대신해,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생활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이룩합시다"라고 인사하면서 생활 가운데 공부의 마음을 늦추지 말도록 합시다.

화두선은 반드시 화두를 들면서 참구해야 합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하면 사된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간절하게 참구하지 아니하면 의단이 독로하지 아니하여, 조사관문도 풀지 못하고 분별심도 풀을 수 없어 결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의심을 지어가되 지어감 없이 지어가야 하고, 의심을 여지모 지어가지 아니하되, 끊임없이 지어가면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자연히 성성적(積積)하고, 성성적(積積)한 공부의 길이 진행되며

라도 간화(禪話)와 참구(參究)는 병행해야만 성성적(積積)한 직심(直心)이 조복되어 의단이 독로하고, 타성일편이 되어 은산월벽을 뚫고 무문관(無門關)을 통과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법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은 정혜가 원만하고 불성을 밝게 보아 각행(各行)이 원만한 부처님이라 하겠습니다.

다음단계로 간화선을 실천(實踐)하여, 일체 종생으로 더불어 청정 불국토를 장엄할 분은 부처님도 조사스님도 큰스님들도 아니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불법의 흥망이 결정됨을 깊이 명심하고 일상에 간화선을 열심히 닦도록 합시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우리 시대 참 스승이 들려주는 공감의 지혜

화제의 신간

달라이 라마의 공감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돌맹이 하나, 꽃 한 송이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결국 세상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_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사람이지만 누구나 공경할 가치들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다. 그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_벨스 만델라, 노벨평화상 수상자

www.jakka.co.kr 작가정신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질의 법사: 무관 스님

- 1986년 인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 법어사 강원 대학교와 졸업,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수료
- 현재 부산법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 화두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전제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는 화두선 참구의 단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순일무잡(純一無雜)하게 성성적(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광 스님** : 화두선 공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신심과 분심과 또한 의정을 가져야 되고, 이 삼대요소가 갖추어져야 마치 숲에 새 발이 있는 것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종교를 믿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 신심이 결여될 것 같으면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뼈대와 근원되는 요소가 없다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살면서 갈팡질팡 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던 안하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근원이 되는 '근원적인 나'를 믿고 이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 일체 모든 부처님과 지혜덕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순간에 그대로 경성성불한 부처님의 구경지(究竟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심을 갖춘 다음에는 뜻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

‘본래’ 라는 말조차 없는 곳이 참진리의 자리

기 싫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현실에서 공부를 짓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뜻한 바가 태산과 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지어가야만이 자기의 구경적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러한 이유를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늘 의문을 갖고 참구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 분별 집착을 근원적으로 소멸해야 됩니다.

의단독로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애연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끊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담배를 끊지 않으면 그대로 폐암으로 전환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수 없다 하는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이분이 바로 그 날부터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년 더 살면 뭐 하나 하면서 좋아하는 담배는 피워야겠다고 정답을 하던 사람이 폐암 걸려서 죽는다는 결정이 나자 그날부터 담배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박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해야 되겠다 인해야 되겠다 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한순간에 돌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생각되면 그 생각을 가집고 동시에 바로 의단독로가 되면서 그대로 타성일편이 되지, 되지 아니할 법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간화선 화두를 들면서 일체의 시비분별이라든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마음을 딱 버리고 허공과 같이 마음을 텅 비워서 이 간화선을 드는 순간 그 자리부터 정식으로 의단독로가 되고 타성일편이 되면서 바로 깨달으신 부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관 스님** : 선지식스님들이 범거량으로 질문자의 수행정도나 말과 문자를 여린 심행처멸(心行處滅)한 견처(見處)를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광 스님** : 이것은 스님의 높은 법력을 가장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식과 이웃을 대하면서 그대로 살



초여름 날씨처럼 햇살이 뜨거웠던 4월30일, 아홉번째 법어사 설선대법회가 열려 4천여 불자들은 법주 정광 스님의 법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아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어떤 말로 어떻게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더라도 저 놈이 무슨 마음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말과 언어로써 조작하는데 있질 않고 상대의 마음이 정말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때의 방편에 따라서 모든 확하면서 그분들의 말에 따라가면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스님 말씀을 방편설이라 합니다. 모든 형상으로 일어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방편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기인하지 마시고 실제로 참구해 공부를 지으면서 참다운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내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먼 문제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나야 하는 바른 사고와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최익두** : 본래면목이나 실상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틀이 아님이 분명한데 현재 일어난 이 법계에서는 분명히 부처와 중생이 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를 포함한 모

든 중생들을 일러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광 스님** :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깨달으면 부처고 미(迷)하면 중생이죠. 마음의 본자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정된 내가 없는데 중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업에 연관된 연기로서 현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현재의 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내 모습을 영원한 내 모습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른 것이죠. 불법의 가장 중요한 두요소가 바로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근본체성하고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늘 독송하는 <금강경>에 보면 여래가 설한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기에 이것을 이름 해서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처님과 중생 둘로 나뉘지 않은 근원적인 모습에서는 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아니지요. 중생이란 것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어서 전체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실상 그대로의 모습이니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고, 또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미한 사람은 미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현자만별로 나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이 말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선문답이 되겠습니다. 선문답 식으로 제가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분은 최익두 거사님입니다. 그리고 대답한 사람은 정광 스님입니다. 정광 스님과 최익두 거사님은 다릅니다. 그러나 일불제자로서는 틀림없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익두 거사님과 정광 스님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다운 맛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는 내가 되어야만이 진실로 바른 내 모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자: 최익두 거사

- 현재 부산광역시 행정 관리국장
- 현재 부산광역시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선도회 이사

**최익두** : 부처님께서는 본래 우주만물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모든 중생을 포함한 우주 만법계로 나눠지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요? 또한 본래무일물 상태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데는요?

**정광 스님** : 미(迷)와 오(悟) 즉, 깨달음과 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범부와 성인으로의 이름으로도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본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래는 자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없고 성인과 중생이 없다는 데서 본래의 물, 본래의 마음, 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합니다.

그러니 본래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본래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의 마음자세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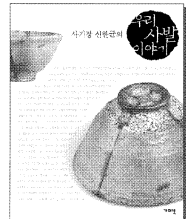
옛말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듯 본래면목, 본래의 모습을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방편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부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본래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종(終)도 없고 이름과 형상 모든 것을 여의기 때문에 본래라는 말 자체도 없는 무심한 우리들의 영원불멸하는 마음의 본 자리, 진리의 본 자리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아시고 조금도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화제의 신간**

“조선 사발을 재현해 낸 신정희 옹의 큰아들로서, 조선 사기장의 후예로서, 조선 사발의 영예를 되찾기 위한 시도!”

**일본은 왜 조선 사발을 막사발이라 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이 애지중지하는 국보로 삼았는가!**



이 책은 과거 일본에 빼앗긴 조선 사발(일본명 이도 자완)을 최초로 완벽히 재현해 낸 도예가 신정희 옹의 큰아들 저자가 15세기 도자기 중주국의 영광을 누렸던 한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사발들의 신비와 사기장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써낸 책입니다.


신한균 지음 | 536쪽 | 올 컬러 | 값 25,000원

사기장 신한균의 **우리 사발 이야기**

**제2권 출간**

**결망에 닮아온 산사 이야기 2**


수많은 독자들의 요청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결망에 닮아온 산사 이야기 1, 2권**

글·사진 임윤수 | 올 컬러 | 각권 값 13,000원

저자 소개 사기장 신한균. 우리 전통의 조선 사발을 최초로 재현해 낸 도예가 신정희 옹의 장남. 매년 세계 유명 회장에서 초대권 개최, 1993년 한국 공예 대전에서 통상 수상, 1996년 국내 최초로 회랑 유약 재현, 2001년는 일본 NHK에서 신한균 작도 과정 일본 전역에 생중계. 저자는 10년간 외국에서 국보나 보물이 된 우리 사발을 찾아 직접 차를 마시고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서 작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자기에 묻어 있는 일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옛그릇 이용 되찾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학자가 왜곡한 우리 도자사와 미학자들이 왜곡한 도자기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저자 임윤수가 수 년 동안 수백 곳의 산사를 찾으면서 결망을 둘러메고 탁발을 하듯 주워온 이야기들과, 1권에서 담지 못했던 유구한 역사와 빼어난 풍광과 감동적인 사연을 지닌 산사를 <결망에 닮아온 산사 이야기 2>에 풀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생과 사를 뛰어넘어 피안으로 드신 큰스님들(석주스님, 송산스님, 정일스님)의 다비식도 담았습니다.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가야네** | 전화 (02) 317-4833-4 | 팩스 (02) 317-4829